

## 도시철도 2호선 재추진 공론화 투표 78% 찬성

광주시, 오늘 건설 재개 공식화

광주 시민의 '성숙한 민주식'이 담긴 공론화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민선5기부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찬·반 논쟁 탓에 그동안 첫 삽도 뜨지 못했지만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의 선택은 찬성이었다. 공론화를 통해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도시철도 2호선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된다. <관련기사 3면>

반대측의 공론화 요구를 전적 수용하고, 다수의 여론을 재확인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관측과 행정 경험에서 비롯된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다. 민선 7기 들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향후 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대측이 주장한 시 재정 부담 절감, 수송능력 제고 및 공공(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한 2500여명 중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선별된 시민참여단이 지난 10일 오후 5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며 "시민참여단 243명 중 찬성은 191명(78.6%), 반대 52명(21.4%)이었다"고 밝혔다.

공론화의 결과가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중단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작업은 정상화할 전망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연속해서 공론화 결과, 2호선 추진 방향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집중 토론회를 거쳐 다음날 오후 3시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 투표로, 1표라도 많은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다른지역의 어떤 공론화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돼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더불어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최영태 위원장을 포함한 공론화 위원, 반대와 찬성 측 토론자, 참여 시민들께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표본으로 선정한 광주 시민 2500명 중에서 찬·반과 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됐다. 남자가 122명, 여자가 128명이다. 나이별로는 20대 48명, 30대 43명, 40대 53명, 50대 49명, 60대 이상 57명 등이다. 광주지역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 60대 이상 참여자가 다소 많았다. 9~10일 토론회와 설문조사에는 시민참여단 250명 가운데 243명이 참여했다. 모두 3단계로 추진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정~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폐막

국내외 31만 8000여명 관람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66일간 관람객들을 만난 2018 광주비엔날레가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6면>

광주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 올해 비엔날레에는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한 난민, 이주 등 다채로운 시각을 담은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올해 비엔날레 관람객은 약 31만 8000여명으로 지난 2016년 관람객 26만 2500명보다 21% 늘었으며 대규모로 선보인 복합집회와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오늘 광주'를 재해석한 'GB 커미션'을 통해 전시관으로 변신한 옛 국군광주병원과 작품들도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해 화제를 모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무등기 챔피언" 1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결승전에서 타요바리스타즈가 우승한 후 태평법률사무소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 '광주형 일자리' 이번주 결판난다

시장·현대차 사장 오늘 독대

지역 노동계 전향적 자세 필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는 이번주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현대자동차와의 합의에 일단 실패한 광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지역노동계 협의, 현대차 재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역노동계의 극적 양보나 현대차의 전격 수용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처지에서 광주시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을 만들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모두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갈수록 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대차의 투자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미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위한 지역노동계의 헌신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1일 투자협상을 제출한 현대차는 160여일간 지역노동계, 광주시의 요구사항을 상향부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신이 쌓인 데다 노조 반발, 내부 이견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12일부터 정진행 현대차 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태호 일자리·윤종원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봉합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협상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서울에 머무를 예정이다. 특히 12일 만나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는 지난 10일 윤종현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을 만나 마련한 새로운 협상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핵심사안인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병훈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은 12일이나 13일 윤종현 의장 등과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갖고 다시 한 번 지역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

지역노동계는 적정근로시간을 기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초임평균 연봉 3500만원을 보장하거나 아예 협약서 명시 없이 경영상치 분석에 의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당초대로 주 44시간 3500만원의 협약서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SUV 경차의 수익률이 낮아 지역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투자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추가 투자 유치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광주경제의 타개책이 사라지고, 정부, 기업 등의 신뢰를 상실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유치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야당 등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 끝내 좌초하면서 광주의 이미지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경제부총리 홍남기·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들을 동시에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의 내부 승진에 따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관련기사 3면>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

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투 톱(불화살)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경제)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새로운 경제 사령탑이 된 홍 내장자는 강연 춘천 출신으로 행정고시(2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거쳐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은 캄솔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자음생에센스

R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  
 \*설화수, 플레그시스트어 및 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시스트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